

지역 매 아리

### 서남권추모공원

# 봉안당 3000여기 증축

#### 정읍시, 11억원 들여 이달 중순 착공 12월 준공



정읍시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3,000여기(2층) 서남권추모공원 봉안당이 증축된다.

정읍 서남권추모공원 봉안당이 증축된다.

시는 “국·도비 7억원과 시비 4억원 등 11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3,000여기(2층) 증축을 추진 중이다”며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경 착공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봉안당 증축사업은 급증하고 있는 봉안당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증축에 따라 서남권 추모공원은 기존 4,000여기(1층)를 포함 모두 7,000여기를 안치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부부단 사용을 선호하는 유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해 개인단과 부부단을 같은 비율로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의 추모공원 아래쪽으로 2단계 확장사업도 추진하고 있

다. 지난해 6월 윤달을 기점으로 안치 속도가 급증해 현재까지 봉안당이 67%, 자연장지 31% 안치율로 만장 시기가 당초보다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4만여㎡ 부지 규모로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8,000여기의 제2추모관 봉안당 건립과 1만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 조성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공유재산관리계

획에 대한 시의회 심의를 마치고, 하반기 부지 매입을 거쳐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지역행정 일원으로 정읍시 감곡면에 4만여㎡ 규모로 조성한 서남권추모공원(1단계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개원했다. 광역공설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유족동산 등 종합장사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팜팜 이모티콘' 출시

#### 팜팜스테이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유명 관광명소와 농특산물을 활용한 팜팜 SNS 이모티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천년의 보물찾기 팜팜스테이션” 사업을 통해 고창농촌관광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군은 보다 친근하고 쉽게 알리기 위한 28개의 ‘팜팜 이모티콘’을 선보였다.

고창농촌관광 팜팜스테이션 홈페이지(<http://gofarmfarm.kr/famfam/>)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팜팜 이모티콘’은 복분자, 풍천장어, 수박 등 고창의 대표 먹거리는 물론 농촌 체험과 농가 민박 같은 농촌관광 콘텐츠 그리고 고창읍성, 고인돌유적지, 선운산 등 고창의 유명 관광지가 잘 담겨있으며 판소리와 고창농악 등 전통문화 즐길거리까지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을 이끌면서 ‘그림 그리는 농부’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수 화백은 고창에 대한 애정으로 이모티콘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

김남수 화백은 “고창농촌관광을 알리는데 보다 친근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모티콘이 색다른 홍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재치 넘치는 ‘팜팜 이모티콘’이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SNS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앞으로 본격 운영될 팜팜스테이션 홈페이지 및 소평물운영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고창 농촌관광 홍보에 신선한 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줄포면 종합청사 개청식 성료

부안군 줄포면(면장 기세울) 종합청사 개청식이 10일 줄포면사무소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청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한수 부안군의회위원장, 최훈열 도의원, 문찬기 군의원, 김정기 군의원, 진남 前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줄포면 기관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식전행사로는 줄포면 농약단의 풍물놀이, 줄포면 주민자치교실의 난타공연으로 줄포면 종합청사 시대를 축하했다.

이어 내·외빈 축사와 개청을 기념하는 테이프커팅, 케이크 커팅, 청사관람 등의 식후행사로 진행됐다. 특별히 진남 前 경제부총리께서 참석하셔서 소장하고 계신 기증품을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신축한 줄포면 종합청사는 줄포면 줄포4길 9-7(줄포면 줄포리 408-1)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4,953㎡에 연면적 2,079㎡으로 줄포면사무소 2층, 줄포면 주민자치센터 3층 건물로 지어졌다. 줄포면사무소 1층은 민원실 및 회담나눔방, 2층은 회의실이며 주민자치센터 1층은 농업소득상담소, 2층은 강의실 및 체력단련실, 3층은 강의실 및 석학들의 서재로 구성되어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정읍시, 라돈농도 방문 측정 실시

최근 일부 라돈침대 매트리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방문 측정에 나선다.

관련해 시는 “오는 16일부터 환경과 홈페이지 공고란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메일(hanhyewon@korea.kr)로 접수하면 접수순서에 따라 신청인 집을 방문, 라돈 농도를 측정해줄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측정 장비 2대를 구입했다.

측정기는 10분 간격으로 측정값이 표시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다중 이용 시설의 라돈 농도 권고 기준은 4pCi/l이다. 시에 따르면 라돈은 공기보다 8배 무거운 무색 무취 무미의 방사성 기체로, 산소나 이산화탄소처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미량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라돈 매장량이 높기 때문에 주로 토양으로부터 유입된다. 고농도 라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서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교적 높은 수치의 농도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환기 설비 개선 방안 등 라돈농도를 낮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참여·소통행정 '앞장'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부서별 협업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현안과 정책을 토의하는 회의를 군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행정 내부망을 이용한 '나래'를 인터넷 중계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부서간 협업과 소통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유기상 군수의 정책 방향에 따라 주요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발표하는 회의와 정책보고 등을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업무용 PC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 송출을 시작했다.

지난 9일 간부회의부터 시작된 중계는 기존에 회의 후 나온 내용을 간부 공무원들이 다시 전달하는 반복적인 회의 방식을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회의나 정책회의 등을 신속·정확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상 군수는 “민선 7기는 모든 공직자와 군민이 군수인 시대이며, 이를



#### 간부회의 실시간 방송중계 업무 효율성 · 투명성 기대

위해 행정의 모든 사항이 열린 형태로 군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며 “회의 중계를 시작으로 영상회의와 메모 보고 등 온라인 협업과 공유가 가능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 토론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면서 스마트한 고창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보건소

#### SFTS 대응 대책회의 개최

정읍시보건소는 최근 도내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환자의 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9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보건소는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감염자 중 사망자가 늘어감에 따라 SFTS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청 4층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인태 부시장과 오경재 원광대학교 교수, 보건의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보건소는 대책회의를 통해 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11월까지 유행하는 만큼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과 농가 개별방문 등을 통해 감염 예방 수칙을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23개 읍면동과 협조하여 진드기 주요 서식지에 대한 집중방역과 함께 관련 부서와 함께 집과 농경지, 등산로 등의 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정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할 것 등의 예방수칙 안내를 포함한 대 시민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20일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

정읍의 대표적인 명품 농산물인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시는 오는 20일 제15회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개최식은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씨 없는 수박 품평회는 명실상부한 여름철 대표 축제로 정읍시수박연구회 회원들의 그 동안 노력의 결실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이다.

행사에서는 최고의 씨 없는 수박을 선발하는 수박품평회가 진행되고, 전북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등 수박 전문가들이 출품 수박을 대상으로 당도와 외형, 무게, 비율 등을 기준으로 최고의 수박을 가린다.

더불어 세계 수박 유전자원과 수박 조각 작품,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지역가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선보인다. 특히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특가 판매와 정읍에서 생산되는 베리류, 자생차 등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시식 행사도 진행된다.

정읍시수박연구회 김보성 회장은 “전국적으로 씨 없는 수박의 재배 면



적이 증가하고 있어 수박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며 “앞으로 품질 규격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씨 없는 수박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의 씨 없는 수박은 2003년도부터 재배되기 시작, 현재 80농가(60ha)가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농가에서 생산된 수박은 산지유통센터의 비파과당도계로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별된 고품질의 씨 없는 수박만이 시중으로 유통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